

나주 객사서 흠대받던 석탑 사찰로 간다

옛 나주군청 앞에 있던
보물 '북문의 삼층석탑'
9월에 심향사로 이운

관공서가 관리하던 보물급 석탑이 지역 사찰로 이운된다. 나주 심향사 주지 원광 스님은 "옛 나주군청 앞에 있던 '북문의 삼층석탑(보물 제 50호)'을 심향사 경내로 옮겨 관리기로 관 계당국과 협의했다"며 "장마가 끝나면 보

수 및 이전작업에 들어가 빠르면 9월경 탑이운법을 봉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년전부터 석탑 반환운동을 펼쳐온 원광 스님은 "저자거리에서 흠대받던 성보문화재를 사찰로 이운하기는 드문 일"이라며 "불교계의 바랍인 성보문화재 제자리 찾기 운동에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다"고 기대했다. 나주시청 김중순 문화재 팀장도 "나주 객사 금성관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석탑을 사찰로 이전키로 했다"며 "불탑이 제자리를 찾게 되어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이번에 심향사로 이운되는 북문의 삼층



일제가 문화재를 약탈하는 과정에서 옛 나주군청 안으로 옮겨진 보물 제50호 북문의 삼층석탑이 9월 제자리로 나주 심향사로 이운된다.

석탑은 일제가 문화재 약탈을 위해 1915년 나주 군청 안으로 옮겨 놓은 것으로, 풍화가 심하지만 단정된 풍미를 잃지 않고 각 부의 비례가 아름다워 1963년 보물로 지정됐다. 현재 심향사에 있는 삼층석탑도 일제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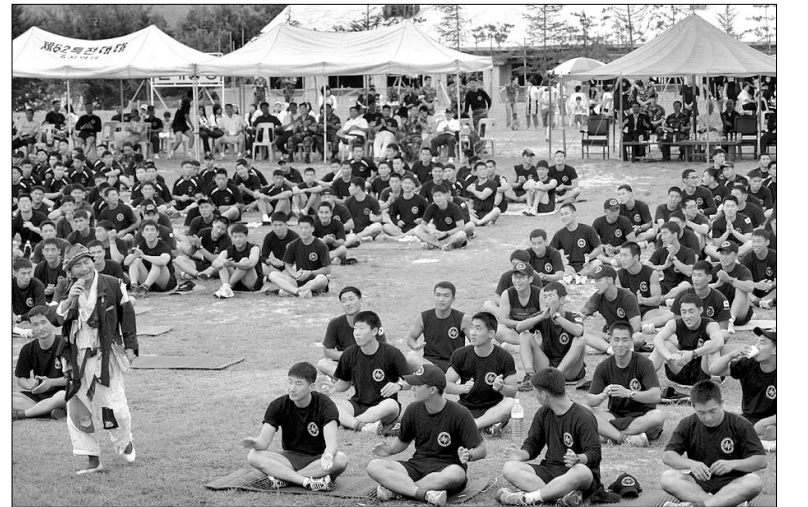
의해 나주군청으로 옮겨졌던 것으로, 1976년 돌아왔다. 한편 심향사는 석탑이 돌아오면 나주시민과 함께하는 축제 한마당으로 이운행사를 열 예정이다. 글·사진=이준엽 기자

광주 혜룡사 장병 위문 공연 펼쳐

혜우 스님, 담양 공수부대서 ... 지역 연예인 총출동

매년 군부대와 교도소, 독거노인 등 소외된 이들을 찾아 자비행을 펼치는 광주 혜룡사 주지 혜우 스님(미타종 종정)의 '나눔 수행'이 계속되고 있다. 혜우 스님은 지난 6월 29일 담양 공수부대를 찾아 장병위문공연을 펼쳤다. 금년으로 4회째 맞는 담양 부대 위문공연에는 한국연예인협회 광주 전남지회도 함께해 지역에서 활동하는 연예인이 총출동했다. 이날 혜우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장병들이 제 역할을 다할 때 나라도 편안해

진다"며 "군생활을 하는동안 힘들고 어려울때도 있지만 오늘처럼 좋은 마음으로 이겨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연에 앞서 라성호 여단장은 매년 위문공연을 펼치는 혜우 스님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한편 혜우 스님은 지난 5월 부처님오신날에도 담양 군부대 장병들에게 떡 1000명분을 전달하고 위문했다. 또한 스님은 연등 보시금을 모아 광주 동부경찰서 관내 청소년들에게 장학금 500만원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준엽 기자



광주 혜룡사와 연예인협회 광주전남지회는 6월 29일 담양 공수부대를 찾아 위문품을 전달하고 공연을 펼쳤다. 글·사진/담양=이준엽 기자

법주사 주변 들고양이들의 운명은?

충북 보은 법주사 일대 들고양이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금강유역환경청이 6월 20일 속리산 국립공원 일대 들고양이를 포획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들고양이들이 다렵되거나 토끼, 꿩 등의 야생동물을 잡아먹고 사할과 식당 주변 음식물 쓰레기를 파헤쳐 주민들의 골칫거리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물보호 단체는 '무차별 포획은 불교의 자비 정신

이 게재됐다. 한국고양이보호협회 회원들은 게시판에 올린 글을 통해 "고양이를 포획 후 학계 실험용으로 제공하거나 인락사시킨다는 계획은 반생명적인 처사"라며 "포획 후 불임수술을 하고 방사하는 방식을 통해 고양이 개체 수가 증가를 막고, 정기적으로 먹이를 제공해 쓰레기봉투를 파헤치는 피해를 막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주사측은 "포획 계획을

제시한 금강환경청이 동물보호단체가 제시하는 대안을 면밀히 검토해 생명을 존중하는 방안을 강구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고양이보호협회는 지난 3월 가야산 국립공원 일대의 고양이 포획 계획이 발표됐을 때 해인사측에 '불임 수술 후 고양이 사료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해 달라'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한편 금강환경청은 "동물보호단체의 대안에는 공감하지만 개체가 많아 일일이 불임수술을 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며 "민·관·학계 관련자 8명으로 이뤄진 '고양이 포획협의회'를 구성해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여수영 기자

금강환경청 포획 계획

야생동물 잡아먹고 쓰레기 파헤쳐 '골칫'

동물보호단체 저지운동

인락사 '반생명적' 불임수술후 방사해야

니르바나 불교사진 공모 광주 덕림사, 9월 10일부터 접수

광주 덕림사주지 무이는 제1회 니르바나 불교사진전을 마련하고 불교문화와 전통문화, 불교건축, 유형무형문화재와 관련된 사진을 공모한다. 이번 공모전은 한국사진작가협회 입회 접수가 인정되는 전국 불교사진전으로 출품작은 9월 10일부터 10월 10일까지 접수 받는다. 심사는 10월 15일, 시상금 총액은 500만원이다. (062)362-2091 이준엽 기자

생명평화탁발 전복순례 회향 7월 8일 전북도청 앞 광장서

지난 3월 새만금 바닷길로부터 시작된 생명평화탁발순례단의 전북지역 순례가 4개월여의 장정을 마무리한다. 생명평화탁발순례단(단장 도법)은 전주 지역을 끝으로 7월 8일 전북농업인회관 강당과 전북도청 앞 광장에서 전복순례 회향 행사 '전복생명평화 문화한마당'을 개최한다. 농업인회관에서 열리는 제1마당은 전북

지역 순례에 대한 평가와 함께 돌아야 할 숙제 모으기 등 순례를 마감하는 행사로, 전북도청 광장에서 열리는 제2마당은 생명평화를 향한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행사로 진행된다. 또 어린이·농민·종교인·문학인 등 순례단과 지역민은 함께 100배를 하며 생명평화를 서원한다. 한편 생명평화탁발순례단은 전북순례에 이어 7월 10일부터 22일까지 대전지역을 순례한다. 순례 중에는 강연회와 대화모임, 위령제 봉행 등을 진행하는 한편, 충남지역 순례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박봉영 기자

티베트 만다라 관정작법 시연 광주 향림사, 칠링 립포체 초청

광주 향림사주지 혜향은 오는 8월 31일 경내 불교회관에서 칼라차크라 만다라 친견 티베트 성라마 칠링 립포체 초청 대법회를 봉행한다. 향림사 신도회와 한티베트문화교류협의회가 후원하는 이번 법회는 티베트 스님들의 만다라 관정작법이 시연된다. 이준엽 기자

지리산 공동체마을 체험마당 8월 2~5일 남원 실상사 등서

인드라마생명공동체는 8월 2일부터 5일까지 남원 실상사와 인드라마지리산교육원, 지리산 등지에서 '2006 청년여름마당-산내야 뭐하니'를 연다. '나 그리고 공동체' '공동체가 뭐하니' '지리산 암자를 걸으며 느끼는 생명과 평화'를 소주제로 열리는 청년여름마당에서는 도법 스님과 대화, 자아명상, 천연염색 체험, 발우공양, 촛세라피, 마음나누기, 마을 거닐기, 발빛 감상, 암자순례 등 3박4일 동안 공동체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 www.indramang.org 박봉영 기자

'새농촌 새농협 운동' 펼친다

전남농협불자회 창립

전남농협불자회(회장 강윤구)가 창립했다. 광주·전남지역 농협중앙회 소속 불자 30여명은 6월 24일 광주 향림사 불교회관에서 창립법회를 갖고 '부처님과 함께하는 새 농촌, 새 농협운동'을 전개하기로 다짐했다(사진). 광주사암연 회장 혜향 스님은 법어에서 "전남 농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쌀이 개방되어야 하는 현실에서 농촌에 힘이 되는 농협 불자회가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창립법회에 앞서 열린 총회에서 초대 회장으로 추대된 강윤구 광주공판장은 "전국 농협 불자회로는 마지막으로 광주·전남지역 불자회가 창립됐다"며 "정기법회, 산사체험, 기초교리 강좌 등으로 신심을 높이고 실천하는 불자가



되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전남농협불자회는 중앙회뿐 아니라 전남지역 200여 농협 불자들도 함께 참여토록 할 예정이다. 이준엽 기자

현대불교 지사안내
호남지사 : (062)375-9986
대전충북지사 : (043)732-5560

광주 불교 방송
BBS FM 89.7 MHz
www.kjbbbs.co.kr

〈화제의 신간 발간〉 - 천의선도 태종선사 김영생



천의선도는 대체의학 천하제일의 민중의술 출간

- 책값 50만원 / 157페이지 삽입

건강을 원하든지 행복을 원하거든 천문을 열어라!!

몸이 아파 몸부림 치는 분, 몸을 편히 해주고 마음이 아파 몸부림 치는 분 마음을 편히 해주는 천하제일의 민중 의술. 기적의 천의선도를 전수시켜 드립니다. 몸 디스크, 허리디스크, 위하수, 갑상선, 생리통, 요실금, 전립선 이상자 등 통증부위에 생명의 에너지를 주입시켜주면 즉석에서 시원해지며 전립선이 좋아진 분은 정력은 물론 조루증까지 없어지며 요실금이 좋아진 여자는 천하제일의 몸으로 변신되니 남편 바람날 염려가 없는 신화 같은 기적의 치료법을 공개했다. 맥박 경락의 이름도 모르는 사람도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천의선도를 전수받고 몇 시간 실습 강의만 듣고 나면 천하제일의 명사가 될 수 있다. 정신분열증, 전간(간질)병도 정상으로 회복된다.

전 세계 의료인에게 이 책을 권유한다

이 책은 영문판, 일어판, 한문판으로 출간해서 전 인류 건강을 위하여 천하제일의 민중의술을 전수시키려 한다. 현대 의학계에서 포기한 암환자, 재생불능성 빈혈환자를 정상으로 회복시킨 체험 사례와 약 제조법을 공개했다.

※ 전 가족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선단체조법과 은 융해법을 공개했다. ※ 선단은 상기되는 열을 하단전에 모아주고 막힌 곳은 뚫어주고 몸속의 독성을 중화시켜 체외로 배출시켜주며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주니 여자가 복용하면 순환제요, 남자가 복용하면 팍스 노인도 이십대로 회춘된다.

※ 은 융해수는 몸속의 세균 바이러스를 질식시켜주며 축농증, 알레르기 비염이 1개월 안에 정상으로 회복되고 아토피성 소양증, 무릎 관절염, 손마디 관절염이 3,4개월 내에 정상으로 회복된다. ※ 사상의학의 팔상 분류법과 체질에 이로운 식품, 해로운 식품, 성격, 적성, 체질따라 보사법을 수록해 놓았다.

이만하면 천하제일의 민중의술이라 하지 않겠는가?

※ 천하제일의 명사가 되는 과정

- ① 천문을 열고 하늘의 서기(생명의 에너지)가 당신 몸에 충만할 때 자연의 신비에 감탄하는 순간 빙의된 조상신이 떠나게 되니 몸이 거뜨해지고 집안이 편안해지며 하는 일이 서서히 잘 풀린다.
- ② 환신을 받아 인당이 열려야 당신의 마음따라 생명의 에너지가 목적지에 발산한다.
- ③ 실습강의 1시간 듣고 나면 당신손으로 디스크 환자를 즉석에서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명사가 된다.

나는 정부당국에 묻고 싶다

현대의학계에서 포기한 환자를 민중의술인이 회복시켰다면 상을 줄 것인가? 발을 쫓았는가? 의료법은 국민건강을 위한 법인가? 의료인을 위한 법인가? 국민건강을 위한 법이라면 민중의술인에게 상은 주지 않더라도 활동 규제를 풀어 줄 수 있는 법적 대안을 마련해 주시라는 호소를 합니다. 이 호소를 묵과한다면 국민을 위한 정부는 아닙니다. 나는 천문과학의 의술앞에 공개 검증받고 싶습니다.

천의선도 대체의학 연구원 원장 김영생

■ 본원

- 주소 : 충남 논산시 연무읍 소룡리 489-1
- 전화 : (041)741-4600 / 011-9803-4600

■ 서울 수련원

- 주소 : 서울시 동대문구 답십리 5동 483-39 삼용빌딩 403호
- 전화 : (02)2216-6278 / 011-9803-4600 / 010-3129-6278

■ 부산 수련원

- 주소 :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동 베르빌오피스텔 1821호
- 전화 : (051)803-5953 / 011-9803-4600